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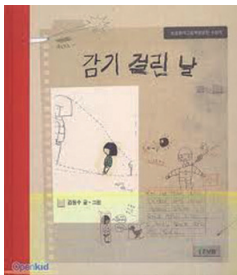
# BOOKS FROM Korea (Republic of)

The National Library for Children and Young Adults chose 10 Korean children's picture books based on recommendations made by 19 members of the Children's Materials Section which is the subcommittee of the National Library Service Council for Children in Korea. The Children's Materials Section is composed of 19 librarians who serve children and young adults in public libraries and children's libraries, while they also write children's book reviews, which are shared by children's librarians nationwide. For the 'World through Picture Books' project, the members chose 25 titles of quality children's picture books and a notable children's literature author Ms. Ji Eun Kim made the final selection of the following 10 titles.

## 1 Dong Soo Kim

### 감기 걸린 날 [How I Caught a Cold]

Borim Press, 2002 • ISBN 978-89-433-0479-9



The book *How I Caught a Cold* is about childhood behavior. What does a flock of featherless ducks have to do with a little girl catching a cold? It all begins with a new down winter jacket. One day, she discovers a feather emerging from it. That night, she goes to sleep wondering about the feather and begins dreaming of featherless ducks who feel cold. The girl distributes the feathers from her jacket. Finally, all the ducks feel warm but the girl doesn't. This book displays a child's imagination and love of animals.

무엇보다 이 책의 그림은 대단히 정답다. 마치 수업시간에 판 짓하며 쓴 낙서 같은 책 표지는 손때까지 덕지덕지 묻어 있어서인지 연필심 냄새가 나는 것만 같다. 책 표지를 넘기면 내복바람의 어린이가 깃털 바구니를 머리에 이고 썩썩이를 타며 어디론가 달려가고 있다. 깃털을 줄줄이 흘리는 모습이 꼭 무슨 짓을 하면 흔적을 남기는 어린이의 행동을 보는 것만 같아 미소 짓게 된다. 감기에 걸린 현실과 오리를 염려하는 아이의 상상력이 결합되어 새로운 이야기를 도출해 낸 책이다. 어린이의 순수하고 엉뚱한 면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

누구나 한 번은 걸려서 고생해 봤을 '감기'라는 소재를 일상적이지만 어린이 특유의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과 독특한 상상의 논리가 담겨져 있다는 점에서 특별한 인상을 주는 그림책이다.

작가 김동수는 2009년 도쿄 국제 도서전에서 이 책을 소개하여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 2 Jae Soo Ryu

### 노란 우산 [Yellow Umbrella]

Borim Press, 2007 • ISBN 978-89-433-0691-5



Like a sonata, this book is enjoyed with music instead of words. It is written without words. On the book readers will see the yellow umbrella that a student would hold on a rainy day. There is a harmony of colors and rhythm made by the yellow umbrella together with other colorful umbrellas. In the attached CD, there are 14 short pieces of piano music in accordance with the illustrations. This book has no text but it talks about the beauty of a rainy day. In 2002, the New York Times selected *Yellow Umbrella* as the 'Book of the Year'.

비가 오는 풍경을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독특한 시선처리가 눈길을 끄는 작품이다. 그림 속에서 경쾌하게 움직이는 우산들의 움직임은 비 오는 날의 생동감을 즐기는 어린이들의 마음을 보여준다. 빗줄기를 그려 놓지 않았음에도 마치 빗방울이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수채화풍의 그림구성이 돋보인다.

또한 책에 함께 수록된 CD에 실린 음악은 '톡.톡.톡' 빗줄기가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빗속에서 책을 읽는 것 같은 기분을 불러 일으켜 준다.

비 오는 날의 정취와 내음을 담뱃담아 감성을 깨우는 이 책은 그 예술성이 뛰어나다고 생각되어 추천하였다. 2002년 뉴욕타임즈에서 '올해의 우수 그림책'으로 선정된 바 있다.

### 3 Hee Kyung Kim • Iwona Chmielewska, ill.

#### 마음의 집 [A House of the Mind: MAUM]

Changbi, 2010 • ISBN 978-89-364-5431-9



"A House of the Mind: Maum" invites readers into a philosophical dialogue with the self through three questions: "Where is the mind?" "What is the mind?" and "Who owns the mind?" Readers can learn how to understand and communicate with others through poetic texts and images. In addition to the self-reflective text by Kim Hee-kyung, Polish artist Iwona Chmielewska illustrated the work with abstract geometric forms and movable images. This book won the Bologna Ragazzi Award for non-fiction in 2010. The critics praised the work for being like "a short elegant poem," and imbued with a "vision of the world."

이 책은 '마음'이라는 철학적 주제를 누구나 알기 쉬운 '집'의 구조와 특성에 빗대어 나타낸 그림책이다. 나의 마음과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소통하는 법을 아름다운 시적 언어와 따뜻한 그림을 통해 배울 수 있다.

이 책의 콜라주 기법은 하나의 기억에 새로운 생각이 덧대어지면서 점점 커지는 우리의 마음을 인상적으로 설명해주는 표현방식이다. 2010년 볼로냐 국제아동도서전에서 라가치상 논픽션 부분 대상을 수상하였다.

### 4 Yoon Duck Kwon

#### 만희네 집 [Man-Hui's Home]

Gilbut, 1995 • ISBN 978-89-86621-10-X



This book shows that 'home' is not simply the place you live but a place connected to your history, heritage, friends, family and memories. Man Hui's family lived in a small town house and then moved to his grandparents' house where they have many rooms, a spacious backyard and three dogs. He finds a lot of enjoyment in living together as an extended family. Readers can have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daily life of a Korean family in the 20<sup>th</sup> century. Though we may take home for granted, readers will realize the most essential embodiment of life is 'home'.

집을 보면 그 곳에 사는 사람이 보인다.

집은 거쳐 가는 곳이 아닌 머무르는 곳, 가꾸는 곳, 이야기가 있는 곳이라는 것을 그림이 말해준다.

이 책에서 보여주는 만희네 집은 살기에는 조금 불편해 보이지만 사람살이 냄새가 나는 사람 중심의 집이다. 이 곳에서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을 받으며 마음껏 뛰어 놀던 만희는 지금쯤...

그 곳에서 아이를 키우며 아이와 함께 집을 가꾸어가는 사랑 가득한 아빠가 되었을 것이다.

20세기 한국 도시 가정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섬세하고 따뜻한 그림이 돋보인다.

### 5 Hyun Ju Bae

#### 설빔 [New Clothes for New Year's Day]

Sakyejul, 2006 • ISBN 978-89-5828-139-1



This story demonstrates how important Lunar New Year's day is in the Korean culture. It takes you through the experience of wearing traditional Korean clothes called "Hanbok", a glorious costume complete with embroidered socks, rainbow-striped jacket and a crimson skirt, a warm furry vest, embroidered shoes, lucky charm, red and gold hair ribbons, bag and black satin hat for New Year's Day. The reader can sense how excited the little girl is to have new clothes for New Year's day. There are many wonderful cultural details throughout the book. The details are beautifully drawn and the text flows smoothly.

설은 새 해를 맞는 첫 날로 한국에서는 아주 큰 명절 중 하나이다. 설빔은 이 날 입는 새 옷으로 집안의 여자들이 온 가족의 행복과 건강을 빌며 전통적인 방식에 따라 한 땀 한 땀 바느질로 떠가며 만든다.

한국의 새해 첫날은 추운 겨울이다. 눈도 내려 찬 기운이 알싸한 설날 아침 아이들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한복을 입으며 오랫동안 전해 내려온 가족의 문화와 사랑을 배운다.

영어, 일본어, 프랑스어로 판권이 수출되었고, 작가 배현주는 제27회 한국어린이도서상 일러스트레이션 부문 상을 수상했습니다

## 6 Hyang Rang Choi 십장생을 찾아서 [In Search of the Ten Longevity Symbols]

Changbi, 2007 • ISBN 978-89-364-5414-5



A young girl spent a lot of time together with her grandfather. One day, he became very ill and was hospitalized. As the girl prays for his good health, she begins her journey to collect 10 symbols of longevity which include the sun, mountains, water, rocks, pine trees, clouds, magical mushroom, tortoise, white crane, and deer. These symbols are well demonstrated through illustrations featuring Korean traditional furniture and colors. In particular, it is interesting to see each symbol shown using different subjects like fabrics, paintings, chest inlaid with mother of pearl, embroidery, quilting and so on.

이 책은 보기만 해도 마음이 환해 진다. 포근한 목화솜 이불에 파묻혀 누워 있는 듯한 아늑함이 느껴진다. 한국의 옛사람들은 가족의 건강과 안녕을 바라는 마음으로 생활 속 물건들 곳곳에 십장생 무늬를 새겨 두었다.

이 책은 한국의 전통적 색채로 한국인의 문화와 풍습을 정교하게 표현한 책이다.

특히 한국 전통가구인 자개장의 자개를 모아서 십장생을 표현한 부분이 이채롭다. 또한 내용과 그림의 표현 기법들이 잘 연결되어 있다.

십장생을 하나하나 모으면서 할아버지의 건강을 바라는 아이의 마음이 잘 드러난 사랑스러운 이야기이다.

## 7 Young Kyung Lee 아씨방 일곱 동무 [The Seven Friends in a Lady's Chamber]

Biryongso, 1998 • ISBN 978-89-491-0020-7



The setting of this story is a Lady's Chamber where a young woman sews clothes. The Lady has seven friends for her needlework: Ruler, Scissors, Needle, Thread, Thimble, Small iron with a long handle, and Iron. When the lady dozes off one day, the seven friends argue about who is the best part of sewing. Later, they all realize that all of them make sewing possible and they cannot carry out the needlework without the help of friends. Readers can realize that everything existing has its own value and better understand a Korean woman's daily life and traditional clothes of Hanbok.

한국 옛 여인의 방에서 만날 수 있는 아기자기한 바느질 도구를 주인공으로 삼아 세상 모든 존재의 가치와 중요성을 표현한 그림책이다.

아씨방의 바느질 도구인 자, 바늘, 실, 골무, 가위, 인두, 다리미를 의인화하여 아씨의 오랜 친구를 표현하고 있다. 이 일곱 친구들이 입고 있는 한복은 한국 전통이 아름다운 선과 색의 아름다움을 전해준다.

본문 첫 페이지 아씨의 방안에 걸린 족자 그림은 조선 시대 풍속화가 신윤복의 미인도 그림으로 한국의 대표적인 문화재이다. 한국의 생활모습을 살펴보면서 이야기의 재미도 느낄 수 있는 책이다.

## 8 Tae Joon Lee • Dong Sung Kim, ill. 엄마 마중 [Waiting for Mama]

Hangilsa, 2004 • ISBN 978-89-356-5712-3



A little boy is waiting for his mama on the streetcar platform. As each streetcar arrives with passengers, he asks the driver if his mama is coming. Finally, one driver warns the boy he will get hurt if he stands so close to the streetcar and tells him to stand still until his mama comes. Time passes, the wind blows and snow falls as the child waits patiently without moving until his mother arrives. The muted watercolors capture people and scenery as they might have appeared in Seoul in 1938. A perfect union of text and illustration tells a simple but moving story.

이 책에서는 엄마를 기다리는 아이의 간절한 마음이 추워서 코가 새빨개진 아이의 모습으로 잘 표현되었다. 따뜻한 모자를 쓴 노란 소년의 캐릭터는 1900년대 초반 서울에서 만날 수 있었던 친근한 보통아이의 모습이다.

어린 아이의 눈으로 바라본 세상은 커다란 기차와 말없는 나무처럼 무심하고 냉정하다.

어두워지는 하늘에 눈까지 내려 아이는 두려움을 느끼지만 한 전차 차장의 다정한 도움말에서 용기를 얻는다.

20세기 초 근대화의 초입에서 바쁘고 어렵게 살아가는 한국 서민들의 모습과 낯날 시큰한 어린 아이와 엄마의 사랑이 아름답게 묘사된 작품이다.

## 9

Suzy Lee

파도야 놀자 [Wave]

Biryongso, 2009 • ISBN 978-89-491-1205-3



This wordless picture book perfectly captures a child's day at the beach. Followed by a flock of seagulls, a girl runs delightedly to where waves break on the shore. Loosely rendered charcoal and acrylic images curl and flow like water and reflect playfulness, especially in the facial and bodily expressions of the child and seagulls. The use of blue in an otherwise gray-toned world calls attention to the ocean, which rivals the girl as a main character in this story. The New York Times selected *Wave* as one of ten best illustrated children's books in 2008.

그림책과 놀이의 만남이 무엇인지 잘 보여주는 그림책이다.

2~3가지의 컬러만 사용하며 배경을 과감히 생략한 그림은 독자들이 등장하는 아이와 파도에 집중하게 한다. 아이와 파도의 밀고 당기는 게임은 어린이가 바다를 보고 느끼는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명장면이다. 화면 가득하게 그려진 아이의 표정에서는 물놀이에서 오는 즐거움이 충분히 전해진다.

이수지 작가는 '그림자 놀이' '겨울 속으로' 등의 겨울 3부작이라 불리는 작품을 통해 아이들의 생활 속 상상 놀이를 다양하게 그려내고 있다.

## 10

Dae In Cho • Sook Hee Choi, ill.

팔죽 할머니와 호랑이 [The Red Bean Porridge Granny and the Tiger]

Borim Press, 1997 • ISBN 978-89-433-0259-2



One day, a tiger appears before a granny and it tries to eat her. She begs the tiger to make him one bowl of red bean porridge before she dies. The old woman makes a big pot of red bean porridge and cries in front of it fearing her death. At night, the tiger comes back, and the small and weak objects like an egg, straw mat, turtle and gimlet join together to fight off the tiger. Readers are overjoyed when the scary tiger is beaten by small objects. The moral of the story is that those who are bad are punished one way or another.

한국의 옛이야기 '팔죽 할머니와 호랑이'는 위기에 처한 할머니를 구하는 사회적 약자들의 단결에 대한 것이다.

힘 없고 약한 존재들이 자신이 가장 잘 하는 것을 내세워 호랑이를 물리치는 이야기가 빠른 호흡으로 전개되어 재미를 더한다. 이야기를 읽는 어린이들도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에 대한 자신감을 얻을 수 있다. 한국은 오천 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다.

수 많은 침략과 전쟁이 있었지만 끈끈하게 나라를 지켜왔다. 그 원동력은 이야기 속 개똥, 알밤 같은 보통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위기를 극복해왔기 때문이다. 팔죽, 자라, 지게, 명석, 절구 등 한국의 전통 생활 문화를 느낄 수 있는 이미지가 가득한 책이기도 하다.